일주문

성도재일 축하행사 법문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월 7일 오후 2시 제천사암연합회 주최로 제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성도재일 축하행사에서 법문한다.(043)652-0897

미얀마인 노동자 월동용품 전달

강화 전등사 주지 장윤 스님은 12월 18일 부평 미얀마 불교선원을 방문,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 150여 명에게 의류와 이불을 전달했다.

후불탱화점안법회 봉행

서울 염불만일회 정토사 주지 응천 스님은 12월 22일 법당에서 후불탱화점안법회를 봉행하고 104위 신중탱화 조성을 시작했다.(02)396-3405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

천안 성불사 주지 원경 스님은 12월 19일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천안시청에 쌀 20Kg짜리 100포대를 기증했다.

'부산시 산업평화상' 수상

부산불교방송 류진수 사장은 12월 13일 대한산업 대표로서 부산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3회 부산시 산업평화상을 수상했다.

파키스탄 강진 난민 돕기 성금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김재일 회장은 12월 21일 대한적십자사에 파키스탄 강진 피해 난민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인사

조계종 총무원 일반직 종무원 △총무차장 김영일 △기획차장 황찬익 △총무행정팀장 공승관 △교무행정팀장 박성수 △행사기획팀장 박상희 △기획팀장 김판동 △홍보팀장 윤승환 △전산팀장 박맹수 △법무전문팀장 김봉석 △재산관리팀장 장영욱 △경리회계팀장 윤영희 △문화정책팀장 박종학 △문화유산팀장 박상준 △사회팀장 박정규 △국제교류협력팀장 양정술 △남북교류협력팀장 전형근 △호법행정팀장 황철기 △사서팀장 고기복 △기념관운영본부팀장 황충기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불교학 발전 계기 마련할 터"

2006 큰일 준비해요

한국 불교학결집대회 대회장 종림 스님

"제3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불교학과 교학이 한 자리에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2006년 불교학계의 화두는 단연 4월22~23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이하 결집대회)다. 결집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종림 스님(사진)은 이번 결집대회의 가장 큰 의의를 '불교학과 교학의 만남'으로 꼽았다. 결집대회는 국내외 불교학 전공자가 대거 참가, 규모면에서 으뜸가는 불교학 행사가 될 전망이다.

종림 스님은 "불교에 대한 학자의 접근과 강원 학인의 접근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결집대회를 통해 학자와 학인이 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며 불교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학과 교학의 만남'은 종림 스님이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이다. 그런만큼 종림 스님은 강원을 돌며 결집대회 참가를 독려해왔다. 그 결과 160건 가량 접수된 발표신청 가운데 학인 발표자가 10여명에 달하고, 몇몇 강원은 단체로 참석키로 하는 등 호응을 보이고 있다.

종림 스님은 또 경전전산화 · 문화재 · 서지학 등 발표 분야가 다양해지고,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70여명이 발표에 참가하는 점을 들며 풍성한 결집대회가 될 것으로 자신했다.

이처럼 준비과정은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편이나 재정문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으로 남아있다. 약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

종단이나 문화관광부가 지원해 준다 해도 예년의 경우로 미루어 볼 때 금액 규모가 크지 않아 종림 스님을 포함한 집행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여간 크지 않다.

이와 관련, 종림 스님은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불교교리 체계화 및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불교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02)923-7994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종정 표창패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사진)이 12월 20일 열린 대구경북지역 불교지도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조계종 종정 표창패를 수상했다.

지성 스님은 올해 열린 계율수행대법회를 비롯해 백고좌법회와 화엄논강, 담선법회 등 매년 다양한 기획법회를 열어 불교포교에 앞장섰다. 또 동화사 대웅전 해체복원 불사와 종각 불사 등 각종 불사를 통한 가람정비에 노력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북관대첩비 맞이 호국위령재"

초산 스님, 3월 서울서 개최

"2006년 3월 북관대첩비 북송 이전에 범불교적인 위령재를 봉행하겠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던 북관대첩비의 한국 반환을 주도했던 한일불교복지협회 회장 초산 스님(사진)이 오는 3월 '북관대첩비 맞이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초산 스님은 12월 21일 초산사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북5도민회 등 관계 기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위령재를 국민적 축제로 치를 것"이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호국불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계가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초산 스님은 "북관대첩비가 함경도 길주의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관대첩비는 2006년 3월 북송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대불련 새 회장 신보라씨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수행을 통해 대불련이 청년불자들의 능력을 키워가는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신보라(24 · 사진)씨가 제44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 회장은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불련 정기총회에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곧바로 2006년 대불련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 회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각 대학의 불교학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리더십 캠프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조성 명성 스님 서예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명성 스님 서예전이 12월 23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시작됐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종회의장 법등 · 군종교구 주지 일면 · 전국비구니회 前 회장 광우 스님, 목정배 前 동국대 교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불교방송 이성언 사장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30일까지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이 평소 작업해온 서예작품 40여 점과 지승공예품 10여 점이 선보였다. 이외에도 경봉 스님의 '성거미어전(聲去眉語傳)' 등 큰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작품 30여 점이 동반 전시됐다. 강지연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창립 10주년 잔치

좋은 벗 풍경소리(회장 성행)의 창립 10주년 및 피아노 반주곡집 출판기념 법회가 12월 21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금영의 김승영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10주년 반주곡집 제작에 공로가 큰 불로사 주지 현오 스님, 천태종 비구니법사회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스리랑카 노동자에 방한복 전달

조계종 사회부(부장 지원)는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안산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에게 방한복 105벌을 전달했다. 지원 스님은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와치사라 스님은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조계사, 성탄절 축하 대형 트리 점등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12월 22일 일주문 앞마당에 3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하고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점등식을 가졌다. 조계사는 이날 크리스마스트리 위에 화합의 한지전통등 양식으로 특별 제작한 '별등(星燈)'을 달아 이웃종교의 기념일을 축하했다.

스님신발 아이젠부착 수행화 출시
눈길 빙판길 간단히 아이젠만 열면 안전보행

겨울철만되면 산속에 계시는 스님께 고통을 주는것이 눈과 빙판길이다. 매년 많은 스님께서 미끄러져 골절상으로 큰 곤경을 당하곤 한다. 국내 최대의 전문성신발 메카인 삼양통상(주)에서 미끄러운 산길을 자유롭게 다닐수 있도록 만든 수행화는 그림과 같이 평상시에는 아이젠(미끄럼방지기)이 부착되어 있어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간단히 아이젠을 열면 걱정없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고품격 천연가죽과 최첨단 신소재인 NOAH-TEX로 제작된 아이젠부착 수행화는 발열기능이 있어 외부온도가 영하-10℃일때 신발내부온도를 7.5℃상승시켜 겨울에 대단히 따뜻해 두꺼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다. 99%방수되며 대단히 가벼워 장시간 만행에도 발의 피로가 없는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신발이다. 추운산속에 계시는 스님게 깨끗한 마음과 착한 정성으로 따듯한 수행화를 보시한다면 무명업장을 녹이고 병술년 새해 무량대복을 받을것입니다. 출시기념 할인가격 98,000원 전화로 신발싸이즈와 주소를 알려주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신청전화(02)735-6921 농협053-12-102911 김남룡

평생 부자지갑
2006 병술년 재운의 해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 福 지갑 영험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2006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잡귀와 삼재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출시 3개월도 안돼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부도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돈을 버는 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2006년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 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 사찰에서도 최고!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설치 사찰이 크게 늘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산되는 고화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고화질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쌍방향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게임과 각종정보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준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및 외국어 교육에도 큰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쉽게 볼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없이 월시청료 23,000원만내면 한국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산간벽지사찰 난시청지역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어디든 가지고 다닐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와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12월말까지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가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맥파차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린다.
문의전화(02)741-4477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8